

# 솔선수범, 당신이 최우선입니다.

제52호 자랑스런 안전인 (주)세영기업 박성철 대리

“정지, 안전거리 확보, 손·발 위치 확인” 기본만 제대로 지켜도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낮이면 벌써 시원한 팔빙수가 생각나게 하는 더운 날씨가 시작되었지만, 밤이 되면 시원한 바람 한 점에 묻어오는 은은한 아카시아 향에 취해버릴 것 같은 아름다운 계절이다. 아카시아향이 밤에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어두운 곳에서 그 가치가 더 빛나는 사람, 바로 자랑스런 안전인이다. 오늘은 포항에 위치한 (주)세영기업의 박성철 대리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모든 근로자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철 대리는 포항시 남구 동춘동에 위치한 POSCO의 외주파트너사인 (주)세영기업의 안전관리자이다. 올해 14년차 안전관리자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철강업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여 왔다. 그의 전공은 금속공학, 대학 4학년 때 졸업한 선배들과의 미팅에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산업안전기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한다.

(주)세영기업에는 1996년에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여 이제 10년이 되어간다. 철강업종의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이 중량물을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등으로 이루어 지다보니 충돌, 협착, 추락 등 많은 위험요인들에 작업자들이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의 임무였다. 안전관리를 시작한 초기에는 철강업에 대한 전문 안전지식도 부족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갖었지만,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다른 동료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지키는 일이 곧 나의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던 97년 9월 세영에 입사한지 1년 6개월, 그에게 ‘중대재해 발생’이라는 큰 시련이 닥치게 된다. 유압테이블에 근로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는 심한 죄책감과 함께 그 동안 쌓아온 신뢰와 자신감도 잃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고, 안전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그 일이 있은 후, 꼭 2,940일이 지난 2005년 10월 16일 무재해 10배수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혼자였다면 절대로 불가능했던 무재해 10배수 달성, 이동섭 사장님을 포함한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과 또 힘들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준 김현호 부장님, 그리고 전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그는 말한다.

2000년 4월에는 POSCO 외주파트너사 중 최우수 안전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2000년 12월 전국 우수안전관리자 선정 등 그 동안 수많은 피와 땀을 흘린 결과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과 행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영원한 무재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임재근 기자>